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2016 의료기관인증 자체조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주기 의료기관인증 후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총 20명의 자체 조사위원을 구성해 ▲기본 가치체계 ▲환자 진료체계 ▲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530개 조사항목에 대해 인증 조사 기준과 병원 규정에 맞춰 수행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개별 추적조사 및 시스템 추적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자체조사 총평회를 지난 12일 개최하여 교직원들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오민구 병원장은 “이번 자체 평가에서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2 정목 스님, 세상에 아픈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전해

정각사 정목 스님은 불기 2560년 5월 14일 부처님 오신 날에 승가 의료후원금 1천5백만 원과 자비 나눔 후원금 3백만 원, 총 1천8백만 원을 쾌척했다.

정목 스님은 이번 기부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다섯 분의 스님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목 스님이 19년째 실천하고 있는 ‘작은사랑’ 운동은 세상에 아픈 어린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환아뿐만 아니라 스님, 청소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자비 나눔 손길을 뻗치고 있으며, 본원과는 2009년부터 소아 환우와 어려운 이웃의 치료비에 써 달라며 반기별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03 스리랑카에서 온 시드미라에게 희망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6일 이주민 돕기 캠페인에서 인연을 맺은 시드미라(4세)군에게 발목보조기, 앉는 자세보조용구, 틸트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를 지원했다.

시드미라는 엄마 아니샤 씨의 뱃속에 있을 때 임신중독증으로 심장이 잠시 멈춰 긴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뇌성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빠 수미스 씨는 아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지난 3월 시드미라를 병원으로 초청해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다각도로 살펴본 의료진은 당장 수술적 치료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아마비 아동 관리와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보조기를 지원하여 병원이 아닌 일상 가정에서 돌보며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니샤 씨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지원에 큰 만족과 감사를 전하고, 시드미라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되돌려 드리는 작은 마음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04 경기도 의료관광 상품개발 관련 베트남 B2B 상담회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국제진료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경기관광공사 주최 경기도 의료관광 상품개발 팸투어 B2B 여행사 상담회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 및 호치민의 주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의료관광 상품을 홍보했다.

본원은 경기도 내 여러 의료기관들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양·한방 협진 프로그램, 한방미용 프로그램, 각종 심혈관질환과 암 질환에 대한 수술 및 치료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병원으로서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05 다리혈관질환 관련 건강강좌 개최

다리혈관센터 이재항 교수는 19일 일산덕양구 보건소에서 ‘알고 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다리혈관질환’이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다리혈관질환의 대표적인증상 ▲폐쇄성 동맥경화증의 증상 ▲폐쇄성 동맥경화증위험인자 및 치료 관련 질환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하지정맥류와 혈관질환 관련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와 폐쇄성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매달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